

덕트 테이프 패션에 표현된 다원주의

이봉덕¹⁾ · 양숙희²⁾

1) 광주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2)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Pluralism in Duct Tape Fashion

Bong-Duk Lee¹⁾ and Sook-Hi Yang²⁾

1) Dept. of Fashion Design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Korea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Pluralistic and diverse values exist in the realm of post modernism society. In this context, one particular outlook does not have the same meaning across the whole society. The creation and sharing of a new meaning do not necessarily need the consent of every member of the society.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delv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phenomenon and fashion trends in the pluralistic culture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analyze a pluralistic phenomenon itsel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theoretical paradigms to analyze and interpret various pluralistic phenomena in postmodernism fashion. Theories developed by Gilles Deleuze have been utilized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duct tape fashion which is in vogue among the young generation in the USA. The analysis based on the paradigm of Gilles indicates that the duct tape fashion shows pluralistic features of as in the other postmodern cultural activities.

Key words : postmodernism, pluralism, duality of meaning, Duct tape fashion

1. 서 론

인간의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조건에 의해 극단적인 애매 모호함과 동시에 다발적인 양면성을 보인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패션 역시 역동적이며 다양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는 인간의 창조성과 함께 사회, 문화 및 사유 철학 체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계속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패션은 특정 계층에는 익숙해 보이는 한편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혼란스러워 보인다. 또한 패션은 상징적으로 혼란스런 여러 의미 층을 가지며 이 상징적 혼동성은 사고와 절충 과정을 거쳐 대중에게 수용된다. 세기말 사상과 더불어 다원주의가 사고의 틀을 이루는 포스트모더니즘 환경에서는 다양함과 동시에 관용성이 패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는 가치의 다양화와 놀랄 정도로 다양한 변이가 공존하며 하나의 외양이 사회 전체에 동일한 의미

를 갖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인식의 공유나 새로운 의미 창조가 반드시 구성원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 문화적 현상과 패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에 관한 고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현재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현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덕트 테이프 패션을 들고 이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특성을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패션과 미학 연구에 새로운 미적 관점을 제시하고 철학적 연구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은 우선 포스트모더니즘 및 다원주의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원적 사고의 가능성과 미적 인식의 다양화를 연구한 들뢰즈(1999)의 의미의 이원성 이론을 이용했다. 도출된 이론의 검증에 위해 덕트 테이프 패션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패션서적, 신문 및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는 가치의 다양화가 허용되고 다양한 변이가 패셔너블하다는 전제 안에 공존한다(Lowe & Lowe, 1985). 또한 한 가지 외양이 사회 전체에 동일한 의미를 갖고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으로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공동의 정의나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찾기 위해 애쓴다(Bloomer, 1969).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인식의 공유나 새로운 의미 창조가 반드시 구성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항상 절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Bogdan & Biklen,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 지배 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호 텍스트 성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체계와 변화, 전통과 혁신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들을 흡수하고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 새로운 것은 존재치 않는다. 둘째는 탈 장르화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는 각 장르가 서로 혼합 및 결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 특징은 자기 반영성으로 모더니즘과 유사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재현성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실제 세계보다는 창조된 세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리얼리즘이 외부 현실 반영에 관심 있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자기반영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격을 좁히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와 고담주의에 반응하여 대중문화의 존재이유를 찾는 작업에 몰두한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고 상실되고 억압받아온 주변적인 것들이 세력을 획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onnor(1995)는 대중 문화에 대한 포스트 모던 이론 중에서 가장 그 특징이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분야가 패션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패션을 연구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경험되는 사회적 문화생활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urshou(1987)에 따르면 패션은 자본주의의 가장 순수하고 발달된 형태로 끝없이 미를 추구해야 한다. 또 다른 연구(Calinescu, 1987)에서는 패션은 영원성의 미학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일시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패션은 변혁을 위한 변혁 작업을 주도하면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자극하고 양산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즉 패션은 계획된 모호함의 논리다. 변화가 생존을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욕망의 사이클이다. 이 끝없는 과정 안에서 해석되고 재해석되어서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가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굳어지고 다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브리콜라주(bricolage)나 패스티쉬(pastiche)의 미학에 바탕을 둔 '혼란스런' 문화 행위는 다양성에 대항하며 디자인이나 구조의 단순한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식적이고 지배적인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저항이다. 이것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주어진 규범에 갇혀 결국은 닮아가고 이것에 저항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일부(NY Times)의 주장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패션의 역사를 살펴보면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전 모더니즘 기간 중에도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진화하는 여러 시련을 겪어 낸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순수성과 기능성에 대한 강조, 번거로운 걸치장에 대한 혐오 등으로 예술계에 불어왔던 혁명이 패션에도 불어왔던 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는 다양한 장식과 스타일의 절충이며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로 계속된 풍부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가속적인 리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Wilson은 현대 패션의 외향 지향적 스타일 추구하고 분열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미학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은 통일성이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여러 조각을 아이러니나 패러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접합한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혼돈의 목적은 스타일에 내재된 정치적 성격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며 패션을 이용하여 지배적인 문화의 의미를 뒤엎고 왜곡시키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또한 인종이나 남녀의 구별을 흐트러트릴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들의 순서를 뒤섞어 놓음으로써 정상적인 시대 감각도 무너뜨리려는 목적도 있다.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문화적 다양성과 저항의 모델을 대중문화에서 찾고 있는 추세다. 특정 집단이 표현하는 스타일은 스타일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섞이거나 동일시되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나온 브리콜라주 즉 집단 문화 교류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층 더 나아가 Connor(1995)는 패션의 유행이라는 현상에서 소위 하위 문화가 지배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새로운 유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위 문화와 전혀 반대되는 문화에서 힘을 공급받는다. 즉, 도시화, 단순화, 다양화를 통해 패션 산업은 자체 시장을 자극하거나 하위 문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다양성을 위한 조건은 혁명적인 의식구조나 비판적 의식의 갑작스런 유입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문화 지배구조의 확장으로 다양화에서 야기됐다는 사실이다. 패션을 포함한 포스트 모던의 대중문화가 분화와 비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체 파악을 위해선 이러한 다양화에 의해 초래되는 극히 다양한 분화 현상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특성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Jameson(1984)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변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 연속적 표시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특정 대중문화는 특별한 변형 단계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화의 이중적 상징 부담을 극복하려는 잠재적인 위치 선정이나 조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적 혼란이나 가치의 전도를 피하기 위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패션에 대한 전반적 문화 현상의 이해와 파악을 위한 통합적 사고 틀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 이러한 시도는 이 시대 문화의 사고 틀인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디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미의 공존과 변이 그리고 다양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들뢰즈의 의미의 이원성 이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들뢰즈의 의미의 이원성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인 데리다가 사유의 해체에 주력했다면 들뢰즈는 존재론에 관한 종합적 사유관을 수립했고 그 사유관은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패션 등의 문화 제 현상에 대한 의미의 재구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들뢰즈의 논리는 사건이자 의미인 존재, 물질적 얼굴과 탈 물질적 얼굴의 두 얼굴을 가진 존재를 주 대상으로 하고 물질적, 문화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유의 틀을 제시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다원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사회 구성원이 현상의 해석이나 의미부여를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 상황이나 논리가 이러한 이중 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 과정인지 아니면 일시적 유행에 지나지 않을 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들뢰즈는 사유를 생성이나 운동의 사유로 부르기도 하는 '사건의 사유'라고 부른다. 사건이란 '의미의 생성' 이고 사건과 의미를 동시에 사유함으로써, 사건이 곧 의미이고 의미가 곧 사건임을 보여준다. 들뢰즈는 사건을 물질적 차원의 운동에서 파생되는 동시에 문화적 차원의 가장 원초적 층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자연과 문화를 가르는 경계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사건과 의미를 동일시한다. 사건이란 물체의 표면이자 문화의 밑바닥, 즉 자연과 문화의 경계면 상에서 발생한다. 들뢰즈가 '형이상학의 표면'이라고 부르는 이 경계면이 모든 문화의 선행적 조건을 형성한다.

의미는 사건과 동일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한다. 들뢰즈는 사건이란 지시될 수 없다고 본다. 지시란 지시 대상의 일정한 개별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부터 솟아 오르는 것이며, 의미란 기초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뢰즈는 사건이란 계열화됨으로써 의미로 화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사건이 그대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 안에서 계열화되며, 계열화되는 순간 의미로 화한다. 따라서 들뢰즈는 사건이란 무의미와 의미의 두 얼굴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물리적 변화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문화 세계 안에서 계열화됨으로써 의미로 화하는 것이다. 한 사회, 한 시대에는 그 사회 그 시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일정하게 계열화하는 통념이 존재한다. 무의미와 역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원초적 힘을 들뢰즈는 욕망이라 부르며 이 욕망은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다. 이런 이원적인 힘이 포스트모더니즘 환경하의 다원주의를 설명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더 나아가 사물들과 명제들은 근본적인 이원성을 형성하기 보다는 의미를 경계선으로 해서 맞붙어 있다. 이 경계선이 그들을 혼합하거나 다시 통합하는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원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사물들을 구성하는 물리적 성질들과 객체적 관계들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비물체적인 사건들을 나타내는 탈 물질적이고 논리적인 부대 물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다원주의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2.3.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개념이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는 모든 양식과 주제에 대하여 열려진 태도로써 모더니즘의 붕괴를 의미한다. 다원화 현상은 예술 작품의 균형이나 질서, 또는 양식이나 장르간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Bailey(1999)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상호 텍스트성, 둘째, 절대 진리와 의미의 해체, 셋째, 개인 행동과 의지의 부 존재, 넷째, 역사적 발전이라는 개념의 비 성립. 다섯째, 과학의 비 진리성. 여섯째, 객관적 가치의 비 존재, 일곱째, 이성우위 사상의 오류성 등이다. 이상은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미의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여 수직적 질서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체로 모더니즘이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고 국제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다면 다원주의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이고 풍토 색 짙은 스타일을 선호했다. 즉, 단독 스타일을 거부하고 절충주의, 이종교배의 복합적 스타일이 유행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Bailey(1999)는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각 주체 또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 그리고 자유의 분해와 융합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고 역사 문화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는 반 인본주의적이다. 인본주의 자들은 인간은 자유를 가지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나 다원주의자들은 인간은 역사와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고 있다. 다원주의 신봉자들은 역사의 일관된 특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역사적 발전이라는 것도 없다고 믿는다. 시대 구분에 따른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문명은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나 원칙은 없다고 믿는다.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예술행위가 다 정당하며 예술은 변화할 뿐이지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을 것만이 예술로 인정된다는 아방가르드주의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적극 인정하고 어느 누구라도 예술행위를 통해 획득하려고 시도한 가치는 모두 인정한다.

한편 들뢰즈에 따르면 자연의 산물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속성인 다양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자연은 다양성과 생산

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의 생산이라는 원리는 각각의 고유한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 속에 통합하지 않아야 성립한다. 때로 비슷하고 때로는 다른 원자들의 합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일종의 합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체는 아니다. 자연은 분명 잠재력이다. 그러나 이 잠재력은 사물들을 동시에 하나의 일관된 전체 안에 넣을 수 없으며 그를 총체할 하나의 조합 속에서 통합될 수도 없는 다양성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들뢰즈, 1999).

미술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미의 개념이나 고전적인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절대가치를 역사주의적인 시각 대신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미술계의 다원주의로의 변화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실질적 문화의 주도권을 가진 미국에 반하여 1970년대 중반 경부터 각 지역에서 각각의 명칭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미술경향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신 표현주의(Neo-Expressionism), 이탈리아의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t-Garde), 미국의 뉴 페인팅(New Painting), 프랑스의 자유구상(Figuration Libre)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다원주의 미술의 성격의 기본구도는 재현(Representation), 패러디(Parody), 이중코드(Plural coding)와 전도된 아방가르드다. 재현은 다른 말로 해체와 재구성이며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리얼리즘을 분해하여 재창조하는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을 패러디화해서 재차용(Reappropriation)하여 고급예술과 대중문화가 상호 침투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원주의는 이러한 저항의 전략을 흡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저항의 전략이 없어진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20세기 패션의 양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 모형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첫째는 복식 양식 그 자체의 내재적 자율성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입장과 둘째는 외부적인 힘, 다시 말해서 사회 문화적 사건이나 특성에 의해 양식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Behling (1985)은 사회, 정치, 경제, 기술적 사건이나 가치의 변화 혹은 이념의 변화가 복식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더 큰 힘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율적인 변화동인과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화되는 이중적 기준이 함께 맞물려 유행이라는 현상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Lipovetsky(1994)에 따르면 18세기 후반부터 패션은 이미 철학적 분석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미학적 사회적 중요성의 부각과 함께 다양한 주제가 함께 표현되면서 패션을 삶의 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함과 자유스러움이 융합과 해체, 초월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상황과 함께 결합되면서 확정적이고 표면적인 상징보다 혼성모방과 일견 무질서한 영역에서 새로움을 찾으며 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Bailey(1999)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reality)도 한 가지 사실(unit)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질적(qualitative)으로 다른 여러 사실로 구성되어 공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미적, 외양적 합성(synthesis)이 현실 또는 현상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한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고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의 하나인 문화 민주적인 요소에 의해 과거에는 주변적인 문화라고 간주되던 문화도 여러 표현 방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Connor, 1996).

3. 패션에 표현된 다원주의 특성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패러디(parody), 혼성모방(pastiche), 브리콜라주(bricolage), 절충주의(eclecticism)등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예술행위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변이와 자유가 보장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이 사고 틀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특징의 특성과 응용 범위를 살펴보면, 패러디는 텍스트의 광범위한 범주에 걸쳐 작용하는데 전체 장르의 관계에 관한 패러디, 한 시대나 조류의 문체에 관한 패러디, 작품의 일부분에 대한 패러디, 그 예술가의 전체 작품의 심미적 양식의 특징에 관한 패러디 등 그 범주가 방대하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Moschino가 1930년대 초현실주의 양식의 패션을 패러디한 경우, 과거 1870년에서 1879년을 특징짓는 버슬 스타일을 1990년대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패러디한 경우 등이 그 예다. 패러디는 하이 패션과 매스패션, 스트리트 패션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며, 그들 상호간에 패러디 기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패스티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낯익은 명화나 대중적 이미지를 작품에 부분적으로 차용, 인용, 변안, 각색하는 창작 방법론이다. 쉽게 말하면 남의 작품에서 이미지를 따오되 독자적으로 짜깁기 즉 혼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남의 작품을 자기 것처럼 속이는 표절이나 도용과는 명백히 다르다. 프레드릭 제임슨에 의하면 미학적 대중주의, 문화 생산물의 깊이 결여, 행복감의 만연 따위는 금세기 후반에 '문화적 우세종'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적 양상이며 동시대의 문화 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으로 개별 주체의 소멸도 그것의 필연적 결과로 인한 개인 스타일의 비효율성이 바로 혼성모방으로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오프꾸뛰르와 프레타포르테 작품에서 모조품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9년 프랑스 디자이너 Martin Sitbon은 1970년대의 복고풍 패션을 재해석하면서 혼성모방을 소개하였다. 패션의 다원화, 스타일의 다원주의가 도래하면서 패스티쉬 또한 1980년대 이후 하위문화에 있어서의 스타일의 슈퍼마켓화로 나타난다. 새로운 양식의 부정, 기표들의 상호관계가 무너짐으로써 관련이 없는 기표 더미들의 형태 등으로 복식이 집단적 유행에서 개인적 스타일로 실행되는 점등이 그것이다.

절충주의 즉 양식의 중복성은 포스트모던의 지지자나 반대자를 가릴 것 없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요체로 간주되어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분명한 상징성으로 비 공간적이며 고전에 근거한 장식을 풍자, 변화시키고 파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부정부주의적이다. 90년대의

Table 1. Postmodernism expressed in fashion

Aesthetic features of postmodernism		Postmodernism expressed in fashion
Expression method	Features	
Parody	Artistic, aesthetic and humorous mimicry	Mimic and/or modify aesthetic features of fashion products or trends which have been already accepted.
Bricolage	Non-traditional expression through distortion and imitation of the original.	Create a new image which is radic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ontext by using equipment available around.
Pastiche	Neutral expression by ignoring original features. Loss of humor	Independently integrating images by using famous pictures and familiar images.
Eclecticism	Attempt to diversify through compromise of time and meaning.	Try to compromise a new meaning while maintaining historical contexts through the retro styles.

레트로 스타일은 역사성의 맥락을 유지하며 시대와 시대와의 절충, 의미와 의미와의 절충을 지향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전위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화는 시대를 뛰어넘어 각각의 요소들이 공존하는 상태로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시대적 경계선이 없고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으므로 서로 병행하며 포용하는 관계이다.

인류학자인 Levi Strauss가 사용한 개념인 브리콜라주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용어로서 ‘do-it-yourself’의 개념인데, 최초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 기호들을 시험하고, 사용하고 조합함으로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1970년대 이후의 하위문화에서 두드러졌던 이 현상은 외모요소가 아니었던 일반적인 모든 물체들이 스타일 반란의 수단으로서 외모 안에 통합되어진 형태로 표현되었다(예 : 핑크의 안전핀, 변기, 체인 등). 브리콜라주를 수행하는 브리콜되는 이와 같이 다소 비 관습적인 방식을 통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브리콜라주를 행한다. 이들은 독특한 외모의 창조를 통해 전통적인 규칙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표현 형태를 창출한다. 대중적 스타일 또는 전통적 스타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브리콜라주의 속성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소비를 통해 가까이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옛 맥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결합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적 성격과 패션의 연관성을 Table 1에서 정리하였다.

4. 덕트 테이프 패션에 표현된 다원주의

패션은 복식 자체의 내재된 자율성에 의한다는 면과 동시대 문화적 사건이나 특성에 의하여 변화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Lowe & Lowe(1982)의 연구에 따르면 패션의 변화는 이 두 가지 힘에 의한 영향을 둘 다 받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의 기준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패션은 숙명적으로 시대의 이상 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기대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적 원리의 만족이라는 이중고리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고리는 시대적 관용과 유행의 표

상이라는 이중적 외적형태를 취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타협적 성격과 유연성 속에 편승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를 되풀이하게 된다.

Washington Post지는 배관용 테이프를 쓰이던 덕트 테이프가 미국 10대를 중심으로 패션의 도구로 사용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1999년 2월 18일자). 패션에 응용되고 있는 덕트 테이프는 주로 은색이며 테크노 세대를 자처하는 10대들은 덕트 테이프로 지갑에서 티셔츠, 배낭, 넥타이, 재킷, 파티용 드레스까지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찢어진 청바지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거나 운동화 주변을 칭칭 둘러 감아 ‘덕트 테이프 패션’(Fig. 1-9)을 만들고 있다. 물론 10대들은 단순히 유행이기 때문에 덕트 테이프를 패션에 응용하는 것은 아니고 실용성 때문에 덕트 테이프 패션을 즐긴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테크노 바를 갈 때 덕트 테이프를 바지 아랫단이나 운동화 주변에 붙이면 때가 덜 타고 조명을 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값이 비싸지 않고 변형이 쉬워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998년 미국에서 덕트 테이프의 판매량은 1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덕트 테이프 패션은 일반적인 패션유행의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명패션이나 시대풍조에 대한 흉내, 추종이 일반적 유행으로 변져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특정 계층에서 시작한 시도가 다른 계층으로 퍼져 나가며 시대의 유행으로 수용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패션의 소재와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타협적 성격 안에서 새로운 유행으로 수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면 보편적 진리도 기존질서의 와해와 재편이라는 패러디임 안에서 길으로 표현되는 미적 양식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개인의 상상력과 의지 속에서 생성된 기존질서의 와해가 보편적 질서로 인식되고 인정되는 전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목격된다. 덕트 테이프 패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덕트 테이프 패션과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ig. 1은 뉴욕주 제네바의 대학생인 Kathy Stearns가 예술 과목 숙제 제출을 위해 제작한 드레스다. Fig.

Table 2. Pluralism in duct tape fashion

Aesthetic value of pluralism	Pluralism in duct tape fashion	
	External meaning	Internal meaning
Deconstruction	Non traditional expression through distortion of original functions of tape	Distortion of materials and nontraditional way of thinking are possible in pluralism
Rejection of absolute values	Refuse to accept the basic value of clothing and materials	Open clothing concept accepting new materials and technique rather than traditional artistic components
Non acceptance of objective aesthetics	Refuse to accept objective social concept and value of expression of beauty	Difference in acceptance of the change in aesthetic value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classes
Coexistence of emotion and reason	Aesthetic facts and value are changed and accepted through the change of time through new manifestations.	Aesthetic values are relative in pluralistic cultures

2는 아리조나에 사는 Bruce Larsen이 덕트 테이프만 사용해서 만든 우주복이며 컨테스트에서 \$5000의 상금을 받았다. Fig. 3은 Jodie Cox와 그의 남자 친구인 Mike Holt가 덕트 테이프로 만든 졸업파티용 정장이다. 이 두벌의 의복을 만드는데 테이프 6통과 3주의 기간이 걸렸다. 제작 방법은 먼저 테이프로 옷감을 만들고 미리 생각해둔 패턴을 이용해 의복을 만들었다. Jodie의 의복은 회색 덕 테이프를 써서 체크무늬 효과를 내었고 Mike의 정장은 세로로 붙여서 줄무늬 효과를 내었다. 조끼는 기본적으로 Jodie의 드레스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 회색, 검은색, 흰색의 테이프를 각도를 주어가며 제작했다. 나비 넥타이는 회색 테이프를 써서 만들고 검은 테이프로 강조를 주었다. Fig. 4에서는 미네아폴리스의 Andrew Cross가 덕트 테이프로 몸을 감고 조각처럼 서있다. Fig. 5는 Andy Rondeau가 덕트 테이프를 사용해 만든 새로운 넥타이다. Fig. 6은 Vermont의 고등학교생인 Emily Bond는 졸업 파티 참가를 위해 만든 덕트 테이프 드레스다. 멋있을 뿐 아니라 최고 인기를 차지했다. Fig. 7은 덕트 테이프를 사용해 제작한 장갑이다. Fig. 8은 빨간색과 녹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스포츠 코트다. 비용은 \$2,000이 들었지만 경매를 통해 판매한 결과 \$1,000을 벌었다. Fig. 9는 덕트 테이프로 만든 구두로 하이 패션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덕트 테이프 패션의 다원주의적 특성을 외향적 의미와 내적 의미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향적 의미는 첫째, 배관용으로 쓰이던 덕트 테이프 본래의 기능이 변화되어 의복의 소재로 이용되었고 둘째, 의복 착용자의 창의력에 따라 손쉽게 변형과 수정이 가능하고 셋째, 기존의 의복 구성 방법의 봉제 과정을 생략하여 의복을 구성할 수 있으며 넷째, 기존 의복에 부분적으로 조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실용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다섯째, 소재의 특성상 의복의 내구성 대신 일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외향적 의미에 따른 내적 의미는 첫째, 다양성의 기치아래 덕트 테이프 본래의 기능을 변형한 비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 가치의 해체 현상을 보여준다. 둘째, 의복소재에 대한 기본적 가치 수용 거부를 통해 기존의 미적 요소를 무시하는 절대가치의 불수용 측면을 나타낸다. 셋째, 조형적 특

성이 객관적 미학을 불인정하고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객관적 사회 통념과 가치를 무시한다. 넷째, 감성과 이성적 가치가 공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원주의 문화에서는 미적 가치도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Table 2는 이상의 특징을 Bailey(1999)가 분류한 다원주의 미적 가치 중 덕트 테이프 패션과 관련된 항목을 대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공존하기 어려운 두 명제가 공존을 넘어 미적 개념의 창조라는 단계까지 융합과 진화를 해나가는 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의 이중적 성격이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사실 일시적 현상에 의한 전체적 유행의 동력적 공헌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본래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Connor, 1994), 들뢰즈의 의미의 이중성으로 해석된(들뢰즈, 1999) 사고 틀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역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덕트 테이프 패션의 경우도 들뢰즈의 주장과 같이 역설적인 가치가 특이성들의 자리바꿈을 통해 재분배되고 서로 다른 것으로 변형됨과 동시에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초기의 특이함은 특정한 계열에 속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특이성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특이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열화된 특이성이 현실화될 때, 그 사건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처음 유행되기 시작할 때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의 전이와 변화를 통한 특이 상황, 현상도 자리바꿈과 재분배, 변형과정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갖게된다. 구체적으로는 테이프가 갖고있는 기능적 의미와 사회 통념상 의미를 넘어 미학적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들뢰즈의 사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계열에 속한 특이성이 현실의 자리바꿈을 통해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 변증법(Kaiser, Nagasawa, Hutton, 1995)의 관계 속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양면적 가치와 스타일이 변화되고 수용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새로 수용되는 특이성은 또 다른 상황에 의해 바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응용이 출현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동시에 포스트 모더

니즘 적인 다원주의 성격이 성립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들뢰즈의 의미의 이원성 이론이 해체와 융합 현상을 보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패션을 설명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기말 패션의 한 형태인 덕트 테이프 패션을 구체적 예시로 들고 그 패션 현상을 문화적 의미의 이중성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보았다. 즉 일견 모순되어 보이고 양립할 수 없는 가치와 현상의 공존을 설명해주는 들뢰즈의 이론을 도입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덕트 테이프 패션을 분석한 결과 덕트 테이프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의 기치이래 덕트 테이프 본래의 기능을 변형한 비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 가치의 해체 현상을 보여준다. 둘째, 의복소재에 대한 기본적 가치 수용 거부를 통해 기존의 미적 요소를 무시하는 절대가치의 불수용 측면을 나타낸다. 셋째, 조형적 특성이 객관적 미학을 불인정하고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객관적 사회 통념과 가치를 무시한다. 넷째, 감정과 이성적 가치가 공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어 다원주의 문화에서는 미적 가치도 상대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덕트 테이프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적 의미와 통념상 의미를 넘어 새로운 미학적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현상은 들뢰즈의 사상에서 설명된 것처럼 특정 계열에 속한 특이성이 포스트모더니즘 환경 하에서 의미의 이중성 부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새로 정착되는 특이성은 또 다른 상황에 의해 바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응용이 출현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문화의 다원주의 성격이 성립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형식의 출현을 가능케 하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까지 연장될 것인가 하는 주제는 더 많은 관찰과 연구, 토론이 필요하며 향후 연관 분야와 미학의 연구 등을 통해 현상의 본 모습에 더욱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옥동 (1990)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서울, p.195.
 김옥동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서울, pp.14-15.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 관한 연구 (I, II). 복식, 37, 103-118.
 들뢰즈 (1999)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서울, pp.24-31.
 리오타드 (1990)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김옥동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서울. pp.272-279.
 박성수 (1999) 20세기 사상을 찾아서. 조선일보 특집기사. 천재들의 지성탐험 (8월 5일자).
 염혜정 (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37, 77-79.
 윤난지 (1993. 2) "80년대 이후 세계미술의 다원주의". 월간미술, 서울, p.64.
 Bailey G. W. S. (1999) Postmodernism and Pluralism in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art. East Carolina University. p.2-3.
 Behling E. R. (1962) The relation of fashion in women's dress to selected aspects of social change from 1850 to 1950.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Berg J. & Nyberg T. (1995) "The duct tape book". Duluth: feifer-Hamilton Publisher. p.69.
 Berg J. & Nyberg T. (1995) "Real stories duct tape book two". Duluth: Pfeifer-Hamilton Publisher. p.122.
 Berg J. & Nyberg T. (1998) "The ultimate duct tape". Duluth: Pfeifer-Hamilton Publisher. p.69.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p.42.
 Calinescu M. (1987) "Five faces of modernity". Duke University Press.
 Connor S. (1995)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London, pp.213-223.
 Derrid J. (1981) "Dissemination". London: Athlone Press.
 Faurschou G. (1987) Fashion and the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t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1(1), 68-84.
 Jameson F.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53-92.
 Hassan I. (1987) 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p. 85-86.
 Kaiser S., Nagasawa R. & Hutton S. (1995)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172-183.
 Lipovetsky G. (1994) The Empire of fashion: Dressing moder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88-128.
 Lowe E. D. & Lowe J. W. (1985). Quantitative analysis of women's dres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pp.193-206. Lexington: Heath/Lexington Books.
 Sproles B. (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Wilson E. (1990) These new components of the spectacle: Fashion and postmodernism in Roy Boyne and Ali Rattansi (Eds.). *Postmodernism and Society*. Macmillan, pp.209-236.
 Wilson J. (1999) "Ductigami: The Art of the Tape". Ontario: Boaton Mills Press. pp.6-7.

(2000년 8월 18일 접수)